

제목: 뿌리가 깊고 넓은 건축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

●첫 번째 이야기 - 생태미술교실

설계의뢰가 들어왔다. 지역 공공미술관에 50평 정도 생태미술교실 한 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역의 어떤 건축사사무실에서도 하지 않을려고 한다. 나는 외국에 살다 와서 실태도 잘 몰랐고, 미술관의 생태미술교실이라는 것에 끌려 하겠다고 했다.

예산에 설계비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담당주무관은 상부에 가서 계약하라고 해서 갔더니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계약서 앞장을 주고 서명하라고 한다. 그렇게 서명을 하고 설계를 시작했다. 현장을 몇 번 답사하고 설계안을 제시했다. 계약에 없던 프리젠테이션도 했다. 디자인이 좋다고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하고 납품했더니 공사비 예산이 2억인데 초과된다고 변경을 요청한다. 예산이 결정되기 위한 세부 내역이 있었을텐데 그런 정보는 사전에 받지 못했다. 몇 번 설계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비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실시설계 완료한 설계도와 내역을 다시 수정하는 지루한 작업을 하고 겨우 공사비에 맞춰 납품을 완료했다. 얼마 후 공사를 한다는 소장이란 분이 찾아 왔다. 1억팔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공사비에 맞춰 공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나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 담당공무원과 협의하라고 했다. 그 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오랜 시간 설계를 한 설계자는 배제된 채 공사는 진행되었다. 작은 공사라 그런지 감리도 따로 없었다. 궁금해서 현장을 가보았다. 내가 알고 지내던 목수가 일을 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현장소장도 낙찰받은 종합건설사에서 하청을 받아 하는 것이라 한다. 종합건설사는 1억팔천에 낙찰 받아 소장에게 재하청주고 다시 목수에게 주니, 그나마 애써서 납품한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설계 변경은 어떻게 했는지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은건지 설계자는 모르고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 곳에 가 볼 때 마다 씁쓸하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디자인하려고 애썼던 설계인데 전면 차양이 다 없어져서 못내 아쉽기 만 하다.

●두 번째 이야기 - 아파트 발코니

파리 근처 블로뉴비앙푸르라는 곳에서 몇 년 살았다. 궁금해서 오랜만에 구글 지도에서 보았다.

평범한 동네고 서민들이 사는 5층 정도의 아파트가 도로 양 옆으로 줄지어 있었다.

구글 지도에서 내가 살던 옛 집과 이웃 집들을 보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랐다. 떠나온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변한게 없다. 하나도 변한게 없다. 특히 외부로 나와 있는 발코니 들이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웃집들도 그대로 이다. 궁금해서 파리의 아파트를 더 검색했다. 오래된 아파트 들이 외관 변경이 없이 그대로다.

몇 십년이 지나도 건물이 준공된 그대로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넓은 아파트도 더 넓히려고 발코니를 개조하여 없앤다. 요즘은 아예 넓힐 것을 전제하여 발코니를 없앨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보니 아파트 형태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성냥갑처럼 비슷비슷하다. 아파트는 특히 발코니가 외부 형태에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실내로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니 조형이 다양한 아파트가 어렵다. 기후위기에 외국은 아파트 발코니를 수직정원으로 하여 설계를 한다. 한국은 발코니 면적 규제와 준공 후 변경 등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처럼 그들도 실내를 더 넓혀 쓰고 싶은 맘이 왜 없겠나. 그러나 불법개조에 대한 벌금이 엄청나서 감히 불법개조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은 설계안 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에 사는 사촌에게 들은 이야기다. 집 마당 잔디를 안 깎으면 언제까지 하라는 고지가 시에서 온다고 한다. 안하면 만 달러 정도 벌금이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집 외부를 다르게 고치거나 페인트를 다시 칠 하려고 해도 옆 집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법개조는 벌금이 엄청나서 감히 할 염두도 낼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은 건축 불법 개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건축은 동네의 환경을 만들고 도시 경관을 만든다. 준공된 건물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네 공간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 다양성과 독창성

자연세계는 참으로 다양하다. 다양하면서 각각의 존재는 독특하다. 다양함과 독특함은 같이 있어야한다. 다양함이 없으면 독창성도 없고, 독창성이 없으면 다양함도 없다. 문화 경제 등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없으면 창의력이

없어지고 독과점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유독 한국건축문화는 타 분야에 비해 다양성과 독창성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번째 이야기 - 허가방 건축사

건축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법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축주에 납품하면 건축주가 인허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건축사가 인허가행정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그에 따른 별도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선 설계를 잘 하는 것보다 인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건축사가 일 잘하는 건축사가 되었다. 법적근거도 없는 오랜 관행과 이를 특권으로 이용한 일부 건축사의 일탈로 건축사사무소가 허가방 사무소로 대중에게 인식되게 되었다. 건축사는 복잡한 건축법과 행정의 업무지연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많은 건축조형의 경우를 다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니 공무원의 유권해석과 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로비를 해야한다.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설계를 더 창의적으로 할려고 노력하지만, 평당 설계비가 얼마하는데 하는 허가방사무소 현실에서 좌절을 겪는다. 건축주들은 허가 만 잘 받아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주는 허가 도면 만 갖고 시공업자의 평당 공사비 얼마 하는 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싸게 잘 지어준다는 말로 업자를 선정한다. 시공업자는 어쩔든 이윤을 남겨야하고 편하게 공사하길 원한다. 공사현장의 주도권은 공사업자가 쥐게된다. 그 후에 건축가가 더 디테일한 디자인 도면을 그려주면 싫어한다. 기술적으로 안된다거나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든다. 건축주는 현장이 빨리 잘 돌아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므로 시공업자에게 끌려가기 마련이다. 건축주 입장에서선 감리비용+현장관리인비용+설계의도구현비용이라는 3중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건축의 기본은 설계인데, 설계에 시간과 돈을 주는걸 아까와한다.

건축사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어야한다. 한국의 건축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1) 건축사는 국가시험을 보고 국가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면허이다. 건축허가 시에 건축사는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사용승인 시 인허가권자를 대신해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것처럼, 허가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지역건축센터에서 협의하여 보완사항들을 진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건축사가 인허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설계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론 불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조형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건축법의 복잡한 규제들을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면적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은 더 단순하게 하고, 정해진 규정 외의 사례들은 건축사의 해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축사가 책임지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몇 개월 동안 건축주와 의논해가면서 설계를 완성한 설계자를 시공과정에서 배제하여 설계의도와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가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심하다. 설계 의도구현이라는 제도를 실시한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선 같은 일에 또 하나의 비용 만 부담하는 것이다. 패션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듯 설계자가 디자인 시공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한다. 건축주가 일반시공업자와 건축사의 디자인시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선 그동안 건축주와 소통했던 설계의도를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시공하면 감리비와 현장관리인비용과 설계의도구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에선 상당한 비용절감이다. 절감된 비용을 더 좋은 건축을 위해 사용할수 있다.

3) 건축사의 설계가 없어도 되는 신고건물이 없어야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읍면지역에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건물들이 많아 건축경관이 낙후되고 있다. 디자인 감각 없이 막 지은 건물들과 난 건축들로 읍면 지역의 동네 경관들이 흉하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들로 이뤄진 유럽의 마을처럼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읍면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건물들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운 소규모 건축들이 뿌리가 깊고 넓은 건축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